

'전자정부 컨퍼런스 및 전시회 2005' 성황리 폐막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는 포스닥 전자정부연구소,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지난달 3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 의장, 한나라당 권오을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중앙부처 정보화 담당관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정부 컨퍼런스 및 전시회 2005'를 개최했다.

글 김혜정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연구원

올 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는 '전자정부 분야별 기술현황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는 주제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 아키텍처 적용 방안을 비롯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웹서비스, RFID, SLA, 공개 SW 등 관련 기술현황 및 적용 방안이 발표됐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은 "국내 전자정부는 전자 결재율이 17%를 넘어서는 등 양적 성장을 일궈냈으나, 앞으로는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등 질적 성장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전자정부팀 최창학 국장은 기초연설을 통해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전자정부 공통기반 구축과 표준화를 강화하고, 국민참여 강화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정부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유관기관간 협력 및 정책조정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전략개발실 도경화 전문위원은 "U-전자정부란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처리하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정부체제로서 맞춤형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전자정부이며, 행정자치부는 U-전자정부의 체계적인 추진체제 마련을 위해 차세대 전자정부 로드맵을 수립하고, 법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U-Gov 추진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왼쪽으로부터 신철호 포스닥 대표이사, 권오을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 원영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전무, 최창학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장.

행정자치부 EA 시범프로젝트를 진행중인 LG CNS의 유호정 책임컨설턴트는 미국, 영국, 일본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마다 목적은 다르지만 대통령이나 총리 산하의 전담기구를 통해 EA를 모두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의 역할 분담을 뛰어넘는 추진체제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데이터센터 박동석 과장은 '범정부전산통합센터 구축을 위한 기술 현황 및 적용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시는 정보화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응용시스템, 인프라, 조직과 인력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한 네트워크 기반 설비 하에서 전산자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One-Click 서비스 지원, 서비스 수준 관리, 통합 관리 시스템, 표준 운영 절차 준수와 Help Desk를 통해 다양한 민원을 접수하고 체계적으로 정보를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산원 송명원 팀장은 "전자정부 웹서비스 구현을 위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웹서비스 도입 ▲관련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추진체제 마련 ▲시나리오와 한국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국내외의 표준화 활동 강화와 대형 웹서비스 공급사와의 파트너십 유지 · 관리 ▲기술적 인프라 구축확산 ▲웹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유도 ▲교육과 홍보 강화 등 7대 전략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컨퍼런스와 동시에 진행된 전시회에서는 티맥스소프트, 알티베이스, 코리아와이즈넷 등이 전자문서, 검색엔진, 보안, 콜센터 등 20여종의 전자정부 솔루션을 전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

